

평가차원에서 기술차원으로 : 태도차원의 변형생성과정*

이수원 · 박영석

한양대학교 · 서울대학교

이 연구에서는 사회적 태도를 형성하는 준거차원이 아동과 성인에서 질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을 규명하였다. 실험 I에서는 사회적 대상에 대한 신념의 구조가 아동과 성인에서 서로 다름을 밝혔다. 아동은 태도가 대립되면 그들의 신념도 달랐다. 태도주제 학생의 복장에서 교복지지자는 질서 차원 [질서 없다(-)~질서있다(+)]에 입각해서 교복과 사복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는 반면에 사복지지자는 개성차원 [개성없다(-)~개성있다(+)]에 준거하여 태도를 형성하였다. 따라서 이들은 교복과 사복을 '없다(-)' ~ '있다(+)'의 평가차원에서 대립시켰다. 반면에 성인은 대립되는 태도에서도 그들의 신념은 같았다. 교복지지자와 사복지지자가 모두 교복은 질서는 있지만 개성은 없고, 사복은 개성은 있지만 질서는 없다고 판단하여 교복과 사복을 질서있다(P) - 개성있다(A)의 기술차원에서 대립시켰다. 실험 II에서는 아동과 성인의 준거차원에서의 이같은 차이가 태도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사회적 대상을 지각하는 개인의 도식적 차원구조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형성하는가를 밝히려 하였다. 이수원과 신현숙(1986)은 태도의 지각된 차원구조가 발달수준에 따라 성인은 평가차원과 기술차원이 분화되어 있는 반면에 아동은 미분화되어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예컨대, 태도 대상을 학생의 복장(교복 대 사복)으로 할 때 태도형성의 준거가 되는 신념들은 <표 1>에서처럼 4가지 종류로 구분될 수 있다.

이들 네가지 종류의 진술들을 피험자에게 제시한 후 이 중 교복을 입을 때 나타나는 현상과 사복을 입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따로 묶도록 한 결과 성인과 아동은 이를 달리 묶는 경향이 있음이 나타났다. 성인은 <표 1>에서 나

* 이 연구는 1988년도 한양대학교 교내특별연구비의 지원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임을 밝힌다. 연구의 문제설정과 진행과정에서 조언을 해주신 장성수 교수와 자료수집과 처리에서 많은 도움을 준 이영훈 군에게 감사드린다.

〈표 1〉 교복 및 사복에 대한 4 가지 종류의 준거신념

	교 복 (P)	사 복 (A)
호 의 적 (+)	질 서 있 다	개 성 있 다
비 호 의 적 (-)	개 성 없 다	질 서 없 다

타난 대로 교복에는 질서있다고와 개성없다고, 사복에는 개성있다고와 질서없다고를 묶는 반면에 아동은 자기가 갖고 있는 태도에 따라 자기가 지지하는 대상에는 호의적인 것을 자기가 반대하는 대상에는 비호의적인 것을 갖다 놓았다. 즉 교복지지자는 교복을 입을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질서있다고와 개성있다고, 사복을 입을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질서없다고와 개성없다고를 묶었다. 사복지지자는 이와 반대로 하였다.

이 사실은 성인은 태도의 차원구조에서 기술차원과 평가차원이 분화되어 있는 반면에 아동은 분화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 미분화된 차원구조란 교복은 호의적(또는 비호의적)인 것이고 사복은 비호의적(또는 호의적)인 것이라고만 생각하는 수준을 뜻한다. 이 수준에서 교복은 ‘호의적’과 같은 의미이며, 사복은 ‘비호의적’과 같은 의미가 된다. 다시 말해서 교복-사복의 기술차원과 호의-비호의의 평가차원이 독립된 차원이 아니며 서로 상관이 되어 하나의 차원이 되어 있는 상태이다. 반면에 분화된 차원구조란 교복에는 호의적인 면 뿐만 아니라 비호의적인 면도 있으며, 사복에도 마찬가지로 있다고 생각하는 수준이다. 이 수준은 교복-사복의 기술차원과 호의-비호의의 평가차원이 서로 독립된 차원으로 존재하는 상태이다.

그렇다면 아동과 성인의 차원분화수준에서의 이같은 차이가 어디서 연유하는 것인가? 이 연구에서는 태도대상에 대한 준거신념의 구조에서 아동과 성인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비쳐지는 것으로 보았다. 〈표 1〉에서 대립되는 두 태도대상, 즉 교복과 사복에 대한 준거신념은 4 종류가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 아동은 이 중 두 가지 신념만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성인은 네 가지 신념 모두를 갖고 있다. 아동이 갖고 있는 두 가지 신념은 그의 태도에 따라 다르다. 교복지지자는 교복의 호의적 신념(질서있다고)과 사복의 비호의적 신념(질서없다고)을 갖고 있으며, 사복지지자는 사복의 호의적 신념(개성있다고)과 교복의 비호의적 신념(개성없다고)을 갖고 있다. 즉 교복지지자는 교복을 착용할 때 얻게되는 가치인 ‘질서’ (질서없다-질서있다)를 준거로 하여 교복에 대한 태도는 물론 사복에 대한 태도도 형성하는 반면에 사복 지지자는 사복을 착용할 때 얻게되는 가치인 ‘개성’ (개성없다-개성있다)을 준거로

하여 사복에 대한 태도는 물론 교복에 대한 태도도 형성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교복지지자와 사복지지자가 서로 다른 준거신념에 대하여 교복과 사복에 대한 태도를 형성한다고 생각했다.

일찌기 Kerlinger(1967)는 교육에 대한 태도에서 진보주의자와 보수주의자가 서로 다른 준거신념에 터하여 태도를 형성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보수주의자는 지식전수, 교육과정, 인격도야와 같은 것이 준거가 되고 있는 반면에 진보주의자는 아동흥미, 개인특성, 사회적응과 같은 것이 준거가 되었다. 보수주의자에게 준거가 되는 것은 진보주의자에게는 준거가 되지 않았으며, 이와 반대도 마찬가지였다. 따라서 그는 보수주의와 진보주의 태도는 동일한 준거신념에 터하여 형성된 태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의 이같은 주장은 교복지지자와 사복지지자가 서로 다른 준거신념에 터하여 태도를 형성한다는 우리의 생각과 일치한다.

그런데 교복지지자와 사복지지자의 준거신념이 서로 다르다는 이같은 사실은 이들 사이의 대립이 양극적(bipolarity)이기 보다는 이원적(duality)임을 뜻한다. 이원적이라 함은 주어진 대상의 의미의 이중성 또는 두 측면을 함축하는 것으로, 이 두 측면이 서로 배타적 관계를 갖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양극적이라 함은 단일차원에서 양극단에 위치함을 함축하는 것으로, 이 두 극단은 필연적으로 서로 배타적 관계를 갖는다. 그런데 주어진 대립관계가 양극적인 성질을 갖기 위해서는 그들의 준거신념이 같아야 한다. 그 때 두 태도는 단일차원에서 서로 대립된다. 준거가 다른 두 태도는 주어진 대상의 두 측면을 나타낼 따름이다. 따라서 이 두 태도가 반드시 서로 배타적 관계를 가질 이유는 없다. 이렇게 볼 때 준거가 서로 다른 교복지지자와 사복지지자간의 대립은 양극적이기 보다는 이원적인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개인간 대립 즉, 교복지지자와 사복지지자간의 대립에서이며, 개인내 대립 즉, 한 개인 내에서 두 태도대상 교복과 사복에 대한 태도간의 대립은 다르다. 한 개인내에서 교복과 사복에 대한 태도간의 대립은 양극적인 성질을 갖는다. 왜냐하면 두 태도대상에서 태도를 형성하는 준거가 같기 때문이다. 앞에서 교복지지자는 질서차원(질서없다-질서있다)에 준거하여 교복은 물론 사복에 대한 태도도 형성하며, 사복지지자는 개성차원(개성없다-개성있다)에 준거하여 사복은 물론 교복에 대한 태도도 형성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한 개인내에서 교복과 사복에 대한 태도는 동일한 준거차원에 기초하여 형성된 것으로써, 이같은 의미에서 두 태도간의 대립은 이원적이기 보다는 양극적인 것이다.

개인내에서 두 태도간의 대립의 이같은 양극성은 평가차원에서의 대립으로 나타난다. 왜냐하면 각 태도집단에서 그들이 준거로 삼았던 두 개의 신념은

평가적 속성에서만 대립되고 다른 속성에서는 같은 것이다. 교복지지자의 준거신념인 질서없다와 질서있다는 ‘질서’라는 속성에서는 동일한 것이다. 단지 전자는 나쁜 특성이며 후자는 좋은 특성이라는 점에서만 다르다. 따라서 이들 두 준거신념으로 구성되는 질서차원(질서없다-질서있다)은 결국 나쁘다-좋다의 평가차원으로 환원될 수 있다. 사복지지자의 준거신념인 개성없다와 개성있다에서도 마찬가지로이다. 따라서 이들 준거차원을 토대로 형성되는 교복과 사복의 두 태도는 평가차원에서 대립하게 된다.

여기서 아동들이 왜 교복과 사복을 평가차원에서 대립되는 것으로 보며, 기술차원에서는 대립된 것으로 보지 못하는가를 이해할 수 있다. 그 원인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교복과 사복에 대한 태도를 질서차원과 개성차원중 어느 한 쪽만을 가지고 형성하기 때문이다. 질서차원을 준거로 하면 질서가 있는 교복은 좋고 질서가 없는 사복은 나쁘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반면에 개성차원을 준거로 하면 개성이 있는 사복은 좋고 개성이 없는 교복은 나쁘다고 볼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만일 한 개인이 이 두 준거차원 즉, 질서차원과 개성차원을 함께 갖게 되면 상황은 달라진다. 한 개인이 두 차원을 모두 갖게되면 교복은 질서는 있지만 개성은 없다는 것을 알게되며, 이와 마찬가지로 사복은 질서는 없지만 개성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교복과 사복에 내재하여 있는 가치의 이중성을 볼 수 있게 된다. 그와 함께 교복과 사복이 갖고 있는 두 가지 가치인 질서와 개성이 서로 배타적 관계에 있음도 보게 된다. 아동에서의 질서와 개성의 두 가치는 서로 별개의 독립된 것이었다. 질서와 개성중 어느 하나의 가치에 매여서 교복과 사복을 바라보는 아동은 이 두 가치사이에 어떤 관계도 인식하지 못한다. 그러나 한 개인이 질서와 개성의 두 가치를 모두 갖고 교복과 사복을 바라보게 되면 이 두 가치가 서로 배타적 성질을 갖고 있음을 알게 된다. 질서를 추구하면 그만큼 개성을 잃게되며, 이와 반대로 개성을 추구하면 그만큼 질서를 잃게 된다는 것을 안다. 그런데 이렇게 두 가치가 서로 배타적 관계를 갖는다는 것은 이들간의 관계가 하나의 연속선상에서 양립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질서가 있다는 것이 곧 개성은 없다는 것을 함축하며, 개성이 있다는 것이 곧 질서는 없다는 것을 함축하게 되면 질서와 개성은 하나의 차원에서 서로 양극에 놓이게 된다. 즉 질서있다-개성있다 차원이 탄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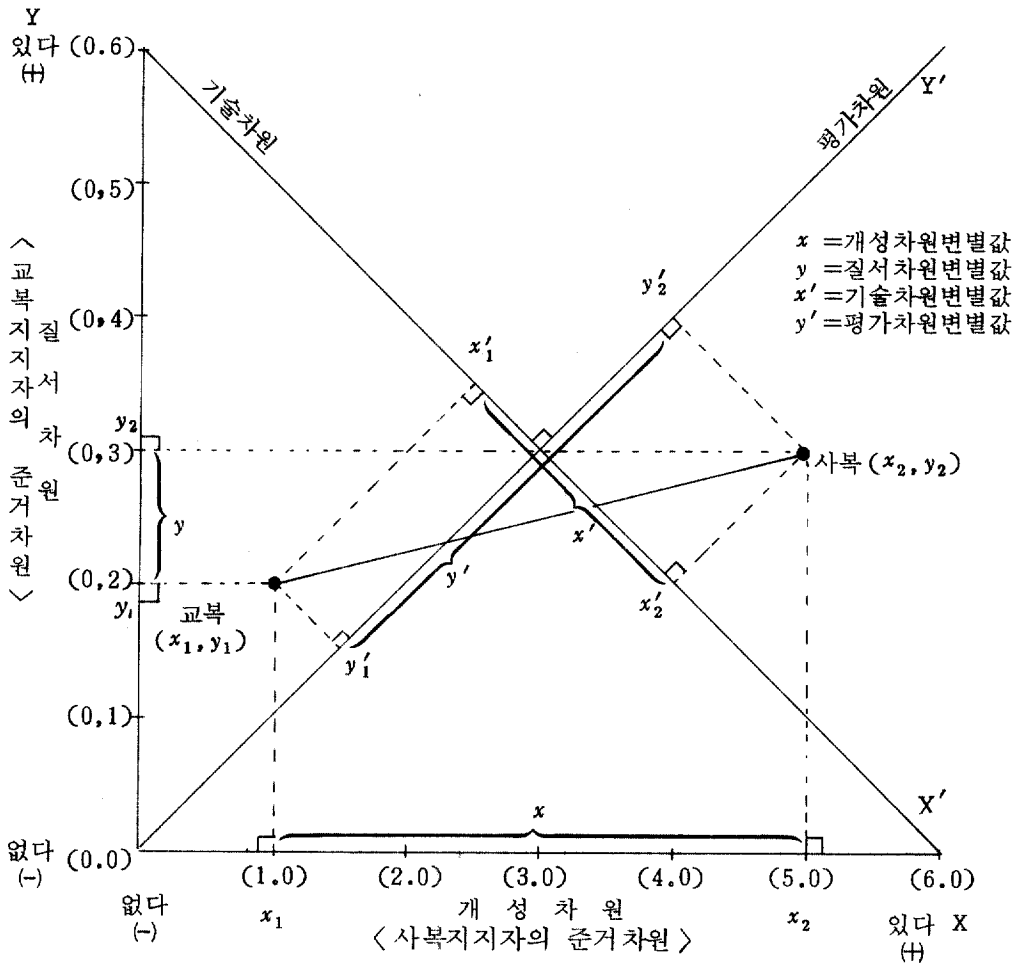
이 연구에서 성인은 아동과 달리 질서와 개성의 두 가지 준거차원을 모두 갖고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위에서 보면 성인은 질서있다-개성있다 준거차원에서 교복과 사복에 대한 태도를 형성한다고 가정할 수 있다. 즉 교복은 질서가 있고 사복은 개성이 있다고 인식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아동이 교복은 질

서가 있고 사복은 질서가 없다거나 혹은 사복은 개성이 있고 교복은 개성이 없다고 인식하는 것과는 다르다. 우선 질서있다-개성있다 차원은 평가차원이 아니다. 질서와 개성중 어느 것이 더 좋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차원을 평가차원이라고 부를 수는 없다. 오히려 교복은 질서있고 사복은 개성있다고 같이 교복과 사복을 사실적 측면에서 대립시키기 때문에 기술차원으로 부르는 것이 적절하다. 여기서 기술차원이라고 부른 것은 이 차원이 주어진 대상이 지니고 있는 속성을 속성 그 자체로서 기술하여 준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붙였다.

또한 질서있다-개성있다 차원을 준거로 하여 나타나는 대립은 개인간 대립이 아니고 대상간 대립이다. 이 수준에서 모든 개인은 같은 준거 즉, 질서있다-개성있다 차원에서 교복과 사복에 대한 인식을 하기 때문에 개인간 대립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아동수준에서 개인들은 서로 다른 준거차원을 가지고 태도를 형성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개인간 대립이 나타나게 된다. 질서에 입각해서 보면 교복은 절대적으로 좋은 것이며 사복은 절대적으로 나쁜 것이다. 개성에 입각해서 보면 이와 반대이다. 이 수준에서 교복과 사복은 좋은 것 아니면 나쁜 것이기 때문에 개인수준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이 수준에서의 대립은 교복지지자와 사복지지자의 개인간 대립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성인수준에서 모든 사람은 교복과 사복이 각각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다는 것을 안다. 질서를 추구하면 개성을 잃게되며, 개성을 추구하면 질서를 잃게된다는 것을 안다. 따라서 가치가 상대적이 되기 때문에 가치선택이 문제가 된다. 질서를 선호할 것인가 아니면 개성을 선호할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이것은 결국 교복을 선호할 것인가 또는 사복을 선호할 것인가의 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수준에서의 대립은 교복과 사복의 대상간 대립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이상에서 기술한 내용을 정리하면 <그림 1>과 같다. 이 그림에서 횡축에는 사복지지자의 준거차원인 개성없다-개성있다는, 종축은 교복지지자의 준거차원인 질서없다-질서있다는 놓았다. 여기서 질서차원과 개성차원이 서로 직교관계가 되도록 놓았는데 선행연구들(Kerlinger, 1967; Tetlock, 1986; 이수원, 1988)에서 이 두 차원이 직교관계로 밝혀졌기 때문에 그렇게 놓았다.

이 그림에서 예시한 것처럼 두 태도대상 교복과 사복은 이 그림에서 두 개의 좌표점으로 나타낼 수 있다. 각 축에서 교복과 사복의 점수는 이들 각각을 질서없다-질서있다고와 개성없다-개성있다고의 7점 의미미분법 척도에서 평정계함으로서 얻어질 수 있다.



<그림 1> 교복과 사복에 대한 변별차원

이 그림에서 교복 대 사복의 대립을 기술하는 4가지 지표를 얻을 수 있다. 먼저 질서차원과 개성차원 각각에서 교복과 사복이 어떻게 대립되는가를 볼 수 있다. 질서차원에서의 대립은 교복과 사복을 질서차원에 투영시켰을 때 나타나는 거리(질서차원 변별값)를 지표로 하여 나타낼 수 있으며, 개성차원에서의 대립은 교복과 사복을 개성차원에 투영시켰을 때 나타나는 거리(개성차원 변별값)를 지표로 하여 나타낼 수 있다. 이들 거리는 개인이 주어진 준거차원에서 교복과 사복을 변별하는 정도를 나타낸다. 환언하면 주어진 준거차원이 교복과 사복을 얼마나 잘 변별해 주는가의 지표이다. 따라서 앞에서

말한 것처럼 교복지지자는 질서차원에서 교복과 사복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고, 사복지지자는 개성차원에서 교복과 사복에 태도를 형성한다면, 전자는 교복과 사복에서의 거리가 질서차원에 투영되었을 때가 개성차원에 투영되었을 때보다 커야 하며, 후자는 이와 반대로 나타나야 한다. 왜냐하면 교복지지자가 질서차원에서 교복과 사복에 대한 태도를 형성한다는 것은 그 차원에 입각해서 교복과 사복을 변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또한 교복지지자가 개성차원에서 태도를 형성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차원에 입각해서 교복과 사복을 변별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질서차원과 개성차원에 투영된 교복과 사복간의 거리를 통하여 개인이 어떤 차원을 준거로 삼아 태도를 형성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질서차원과 개성차원의 원점을 통과하는 대각선은 평가차원을 나타낸다. 이 선은 질서없다와 개성없다의 ‘없다 (-)’에서 질서있다와 개성있다의 ‘있다 (+)’까지의 연속선으로 되어 있다. 여기서 ‘없다’에 해당되는 가치들은 부정적 속성이며, ‘있다’에 해당되는 가치들은 긍정적 속성이다. 따라서 이 연속선은 부정-긍정의 평가차원으로 구성된다. 이 차원의 특징은 질서와 개성의 두 축의 점수를 동시에 함께 반영하여 결정된다는 것이다.

교복과 사복을 이 차원에 투영시켰을 때 나타나는 거리(평가차원 변별값)는 두 태도대상이 평가차원에서 서로 대립되어 있는 정도를 나타낸다. 이 거리가 클 수록 교복과 사복이 평가차원에서 대립되는 것이다. 또한 이 거리는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평가차원에 입각해서 교복과 사복을 변별하려는 정도를 나타낸다. 이 거리가 클 수록 교복과 사복을 평가차원에 준거하여 대립시키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거리가 큰 개인은 교복과 사복에 대한 태도도 극단적일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질서차원과 개성차원을 가로지르는 대각선을 그릴 수 있는 데 이 선은 기술차원을 나타낸다. 이 선은 질서축의 ‘질서있다’와 개성축의 ‘개성있다’를 잇는 연속선으로서 이 연속선상에서 개성과 질서의 두 가치가 서로 배타적 관계를 갖는다. 즉 질서가 있으면 그만큼 개성이 없으며, 이와 반대로 개성이 있으면 그만큼 질서가 없다. 이렇게 두 가치가 서로 배타적 관계를 갖게 되면 이 두 가치는 하나의 연속선상에서 양극에 놓이게 된다. 질서가 있다는 것은 개성이 없다는 것을 함축하며, 개성이 있다는 것은 질서가 없다는 것을 함축한다면 이 차원상에서의 교복과 사복은 각각 감정적으로 중립이 된다. 따라서 이 차원은 평가차원이 될 수 없고 질서 있다와 개성 있다를 양극으로 하는 기술차원이다. 이 차원에서 교복과 사복의 대립은 교복은 질서있고 사복은 개성있다는 같이 인지차원에서의 대립이다.

교복과 사복을 이 기술차원에 투영시켰을 때 나타나는 거리(기술차원 변별값)는 교복을 얼마나 질서는 있지만 개성은 없다고 보고, 사복을 얼마나 개성은 있지만 질서가 없다고 보는가의 정도를 나타낸다. 이 거리가 클수록 주어진 대상을 인지차원에 준거하여 판단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거리는 교복과 사복을 감정적 차원에서 대립시키기 보다는 인지적 차원에서 대립시키는 정도를 나타낸다. 이 사실은 <그림 1>에서도 잘 보여준다. <그림 1>에서 보면 교복과 사복이 기술차원에서 가장 큰 폭으로 대립될 수 있는 지점은 평가차원에서 보면 감정이 중립적인 중앙지대가 된다. 교복과 사복이 평가차원에서 양극단에 위치할 수록 기술차원에서 이들이 대립될 수 있는 폭은 상대적으로 좁아지고 있다. 따라서 교복과 사복을 평가차원에 입각해서 감정적으로 대립시킬 수록 기술차원에서 인지적으로 이들을 대립시킬 수 있는 폭은 줄어들게 된다.

<그림 1>에서 유도된 이상의 몇 가지 지표를 토대로 이 연구의 목적인 왜 아동들은 교복과 사복을 평가차원에서 대립시키는 데, 성인들은 기술차원에서 대립시키는가를 분석할 수 있다. 위 그림에서 아동들은 질서차원과 개성차원 중 어느 하나의 차원만을 가지고 교복에 대한 태도는 물론 사복에 대한 태도도 형성하였기 때문에 이 두 태도대상이 평가차원에서 대립될 수 밖에 없었는데, 반면에 성인들은 질서차원과 개성차원을 동시에 모두 가지고 교복과 사복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였기 때문에 이 두 태도대상을 기술차원에서 대립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 생각의 타당성을 두 가지 실험을 통하여 검토하였다. 첫 번째 실험에서는 위의 그림에서 제시한 생각을 직접적으로 검토하였다. 즉 질서차원(질서없다-질서있다)과 개성차원(개성없다-개성있다)에서 두 태도대상 교복과 사복을 피험자들에게 평정시켜, 질서, 개성, 평가, 및 기술의 4 차원에서의 교복과 사복의 변별값을 산출하여, 아동과 성인이 이 4 차원 중 어느 차원에서 교복과 사복을 변별하는가를 분석하였다. 두 번째 실험에서는 아동과 성인이 교복과 사복을 서로 다른 차원에서 변별한다면 그들의 태도형성의 준거도 서로 다를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실험에서는 교복과 사복에 대한 태도형성의 준거가 아동과 성인에서 어떻게 다른가를 검토하였다. 이 실험에서는 질서상황과 개성상황을 준거로 제시하고 이들 준거에서 아동과 성인이 교복과 사복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형성하는가를 비교 분석하였다.

실험 I. 태도대상의 변별차원 분석

이 실험에서는 교복과 사복의 두 상반태도대상에 대한 변별차원이 아동과 성인에게서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분석하였다. 앞에서 교복과 사복을 변별하는 네 가지 준거차원, 질서차원, 개성차원, 평가차원, 기술차원을 제시하였다. 여기서 아동은 교복과 사복의 변별을 자기의 태도에 따라 교복지지에서 질서차원에서, 사복지지에서는 개성차원에서 하며, 따라서 이 두 태도대상을 기술차원보다는 평가차원에서 대립시킬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이에 반하여 성인은 자기에 태도에 구애됨이 없이 질서차원과 개성차원 모두에서 교복과 사복을 변별하며, 따라서 이 두 태도대상을 평가차원보다는 기술차원에서 대립시킬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이 실험에서는 이 예언을 검증하였다.

방 법

피험자 이 실험에 참가한 피험자들은 국민학교 5학년(5학년) 115명, 중학교 3학년(9학년) 104명, 대학교 1학년(13학년) 104명이었다. 이 중에 남녀는 학년별로 반반씩 되었다.

태도 및 분화수준의 측정 이 실험에서 선정한 태도대상은 학생의 복장(교복과 사복)이었다. 이 주제에 대한 피험자들의 태도측정은 싫다(-3)에서 좋다(+3)의 의미미분척도에서 교복과 사복의 두 대상을 따로 평정케 하여 얻어졌다. 피험자들의 태도의 차원분화수준은 이수원과 신현숙(1986)이 제안한 분류과제기법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과제는 교복과 사복에 대한 28가지 태도진술들(이수원과 신현숙, 1986, <표 1> 참조)을 가지고 14개의 직교차원과제를 만들었다. 각 과제는 교복의 호의적 진술(P^+), 교복의 비호의적 진술(P^-), 사복의 호의적 진술(A^+), 사복의 비호의적 진술(A^-) 각 한 가지씩 모두 4가지 진술로 구성되었다. 예컨대, 건방지다(A^-), 단정하다(P^+), 단조롭다(P^-), 자유롭다(A^+)의 진술들로 구성되었다. 이렇게 제작된 14가지 과제들을 피험자에게 제시하고 각 과제에서 제시된 4가지 태도진술중 교복을 착용할 때 나타나는 현상과 사복을 착용할 때 나타나는 현상을 각각 2가지씩 묶어보도록 지시하였다. 피험자들의 반응분석은 교복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P^+ 와 P^- 를, 사복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A^+ 와 A^- 를 한데 묶으면 정답으로 채점하였으며, 이와 다르게 묶으면 모두 오답으로 취급하였다. 여기서 이 오답량이 클 수록 태도의 차원구조가 미분화된 것으로 간주하였다.

태도대상에 대한 변별차원 측정 앞의 <그림 1>에서 제시한 4가지 준거

차원, 즉 질서차원, 개성차원, 평가차원 및 기술차원에서의 교복과 사복의 변별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피험자들에게 두 가지 종류의 의미미분척도를 제시하였다. 하나는 질서없다-질서있다 였으며, 다른 하나는 개성없다-개성있었다. 두 척도 모두 7점척도로서 제시하였다. 이 두 척도에서 교복과 사복을 각각 따로 평정시켰다. 이 두 척도의 제시순서를 상쇄시키기 위하여 평정지를 두 가지 종류로 구성하여 하나는 질서차원을 개성차원보다 먼저 제시한 반면에 다른 것은 이와 반대 순서로 하였다. 또한 피험자들로 하여금 이 실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모르게 하기 위하여 여타의 다른 의미미분척도 8가지를 무선적으로 섞어서 함께 제시하였다. 이들 척도는 질서있다-개성있었다와 질서없다-개성없었다와 같이 척도의 양극이 모두 호의적이거나 비호의적으로 구성된 척도들과 질서없다-개성있었다와 개성없다-질서있었다와 같이 척도의 양극이 두 가지 서로 다른 가치로 구성된 척도들로 이루어졌다.

피험자의 반응은 교복과 사복 각각에 대한 질서척도(질서없다-질서있다)와 개성척도(개성없다-개성있다)에서의 4가지 점수를 <그림 1>에서와 같이 질서차원과 개성차원으로 이루어지는 좌표상에 두 개의 점으로 표시함으로써 정리되었다. 여기서 질서와 개성의 두 차원에서 교복과 사복에 대한 변별값은 좌표상에서 교복과 사복의 두 점을 각 차원에 투영시켰을 때 나타나는 거리가 된다. <그림 1>에서처럼 개성차원(X)과 질서차원(Y)에서 교복점수를 좌표(x_1, y_1)에 위치시키고 사복점수를 좌표(x_2, y_2)에 위치시킨다면 교복과 사복에 대한 질서차원에서의 변별값은 $y_2 - y_1$ 이며, 개성차원에서의 변별값은 $x_2 - x_1$ 이다.

또한 기술차원(X')과 평가차원(Y')에서의 교복과 사복에 대한 기술차원 변별값(x')과 평가차원 변별값(y')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즉 개성차원(X)과 질서차원(Y)이 직교하면, 각 축이 동일하게 7점척도(따라서 거리는 6이다)이므로 기술차원(X')과 평가차원(Y')은 직교한다. 이때, 기술차원과 평가차원에서의 교복의 좌표(x'_1, y'_1)와 사복의 좌표(x'_2, y'_2)를 구하기 위해서는 $x'y'$ 축을 45° 회전시키면 된다. 따라서 기술차원과 평가차원에서의 교복좌표(x'_1, y'_1)는,

$$\begin{vmatrix} x'_1 \\ y'_1 \end{vmatrix} = \begin{vmatrix} \cos 45 & -\sin 45 \\ \sin 45 & \cos 45 \end{vmatrix} \begin{vmatrix} x_1 \\ y_1 \end{vmatrix} \text{ 이다.}$$

따라서, $x'_1 = \frac{1}{\sqrt{2}}(x_1 - y_1)$

$y'_1 = \frac{1}{\sqrt{2}}(x_1 + y_1)$ 이 된다.

마찬가지로 기술차원과 평가차원에서의 사복좌표 (x'_2, y'_2)는,

$$\begin{vmatrix} x'_2 \\ y'_2 \end{vmatrix} = \begin{vmatrix} \cos 45 & -\sin 45 \\ \sin 45 & \cos 45 \end{vmatrix} \begin{vmatrix} x_2 \\ y_2 \end{vmatrix} \text{ 이다.}$$

따라서,

$$x'_2 = \frac{1}{\sqrt{2}} (x_2 - y_2)$$

$$y'_2 = \frac{1}{\sqrt{2}} (x_2 + y_2) \text{ 가 된다.}$$

그러므로, 기술차원의 변별값 (x')은,

$$x' = |x'_1 - x'_2| \text{ 이고,}$$

평가차원의 변별값 (y')은,

$$y' = |y'_1 - y'_2| \text{ 가 된다.}$$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하여 교복과 사복에 대한 기술차원에서의 변별값과 평가차원에서의 변별값을 구하였다.

절차 이 실험은 학년별로 수업시간중에 집단적으로 실시하였다. 먼저 교복과 사복에 대한 전반적 태도를 측정 한 후 이어서 의미미분척도를 측정하고, 마지막으로 태도의 분화수준을 측정하였다. 모든 측정에서 시간제약을 가하지 않았다. 지시를 통하여 평정요령을 완전히 습득한 것을 확인한 후 평정에 임하게 하였다.

결 과

태도 및 학년에 따른 질서차원과 개성차원에서 태도대상 교복과 사복에 대한 평정값이 표 2에 제시되었다. 이 표에서 태도집단의 구분은 교복에 대한 싫다(1)~좋다(7) 평정차원에서의 점수와 사복에 대한 싫다(7)~좋다(1)에서의 점수를 합쳐 11~14 점을 교복지지자로, 6~10 점을 중립 태도로, 2~5 점을 사복지지자로 분류한 것이다. 표에서 질서차원의 점수는 질서없다(1)~질서있다(7)에서 교복과 사복을 평정한 값이며, 개성차원의 점수는 개성없다(1)~개성있다(7)에서 평정한 값이다.

이것에 대한 변량분석은 각 차원별로 따로 하였다. 학년과 태도를 집단간 변인으로 태도대상을 집단내 변인으로 한 split-plot 설계에서 질서차원에 대한 변량분석의 결과 먼저 태도와 대상간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하였다 [$F(2, 314) = 22.44, p < .001$]. 질서차원에서 교복지지자는 사복지지자보다 교복과 사복의 두 대상을 더 양극단에서 변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

< 표 2 > 질서차원 및 개성차원에서 교복과 사복의 평정값

학년	태도		질서차원		개성차원	
			교복	사복	교복	사복
5	교복지지	(n= 37)	6.41*	3.49	4.81**	4.43
	중립	(n= 36)	6.00	5.17	4.00	5.14
	사복지지	(n= 42)	5.17	4.57	2.86	5.83
9	교복지지	(n= 41)	6.24	3.66	3.88	5.24
	중립	(n= 30)	5.20	4.53	4.03	5.10
	사복지지	(n= 33)	5.55	4.82	3.18	5.76
13	교복지지	(n= 19)	6.21	2.74	2.42	5.32
	중립	(n= 33)	5.70	3.64	3.09	5.94
	사복지지	(n= 52)	5.48	4.14	1.77	6.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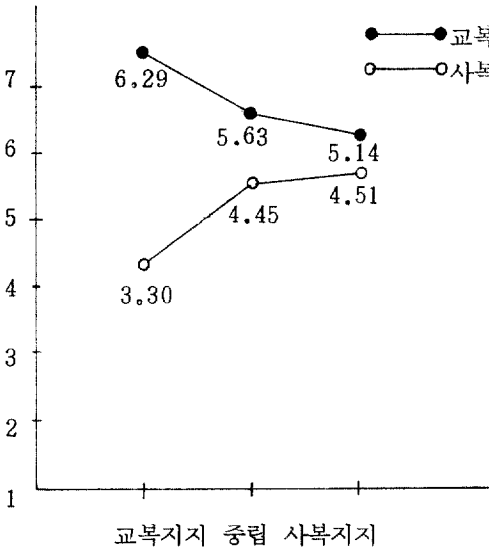
* 질서없다(1)~질서있다(7)의 7점척도

** 개성없다(1)~개성있다(7)의 7점척도

복지지자는 사복지지자보다 교복은 더 질서가 있고 사복은 더 질서가 없다고 평정하였다(그림 2 참조). 그런데 개성차원에 대한 변량분석 결과에서는 이와 반대로 나타났다. 개성차원에서도 태도와 대상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였는데 [$F(2, 314) = 20.86, p < .001$] 여기에서는 사복지지자가 교복지지자보다 더 교복과 사복을 양극단에서 변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복지지자는 교복지지자보다 사복은 더 개성이 있고 교복은 더 개성이 없다고 평정하였다(그림 3 참조). 따라서 교복지지자는 교복과 사복을 질서차원에서 대립시키는 반면에 사복지지자는 이 두 대상을 개성차원에서 대립시킨다고 말할 수 있다. 이 결과는 교복과 사복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교복지지자는 질서차원을 준거로 하는 반면에 사복지지자는 개성차원을 준거로 한다는 앞에서의 가정을 지지해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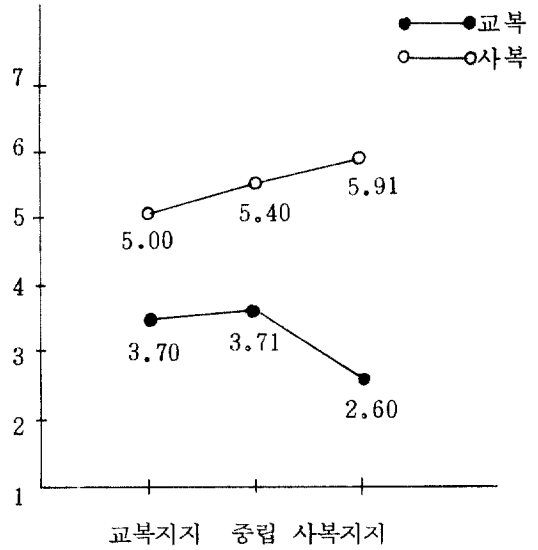
또한 연령에 따라 성인은 아동에 비하여 질서차원과 개성차원 모두에서 교복과 사복에 대한 변별력이 클 것이라는 예언도 학년과 대상의 상호작용 효과의 분석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질서차원에서 교복과 사복에 대한 변별정도는 학년이 높아질수록 커지고 있다 [$F(2, 314) = 4.72, p < .01$]. 개성차원에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결과가 나타났다 [$F(2, 314) = 20.40, p < .001$]. 그림 4에서 보면 학년이 높아질수록 교복은 더욱 질서가 있고 사복은 더욱 질서가 없다고 하여, 질서차원에서 교복과 사복을 대립시키고 있다. 또한 그림

질서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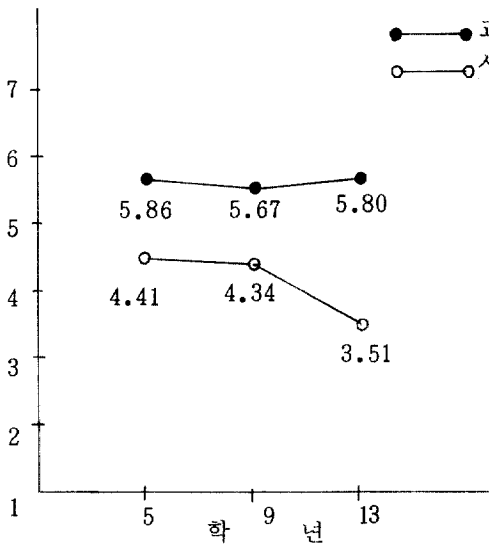
<그림 2> 질서차원에서 태도별 교복과 사복에 대한 평정값

개성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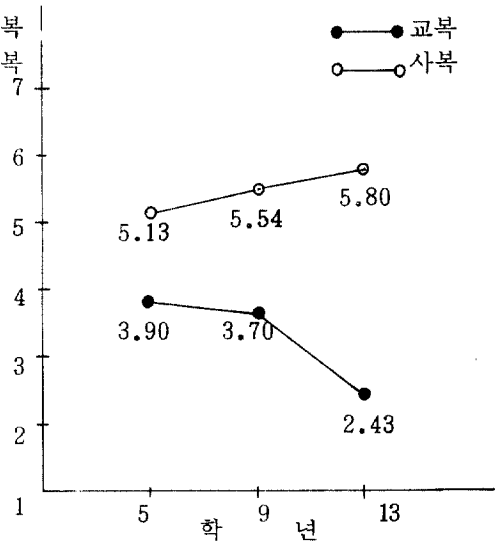
<그림 3> 개성차원에서 태도별 교복과 사복에 대한 평정값

질서있다



<그림 4> 질서차원에서 학년별 교복과 사복에 대한 평정값

개성있다



<그림 5> 개성차원에서 학년별 교복과 사복에 대한 평정값

5의 개성차원에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결과가 나타났다. 따라서 성인은 아동에 비하여 교복과 사복을 질서와 개성의 두 차원 모두에서 대립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 사실은 평가차원과 기술차원에서의 교복과 사복에 대한 변별값의 분석을 통하여 더욱 명료하게 드러난다. 표 3은 학년과 태도별로 이를 변별값을 정리한 것이다.

< 표 3 > 평가차원 및 기술차원에서 교복과 사복의 변별값

학년	태도		차원	
			평가	기술
5	교복지지	(n=37)	2.98*(2.35)**	2.75 (2.44)
	중립	(n=36)	1.32 (1.29)	1.67 (1.51)
	사복지지	(n=42)	2.32 (1.91)	2.96 (1.90)
9	교복지지	(n=41)	2.10 (1.73)	3.35 (1.83)
	중립	(n=30)	1.23 (1.20)	2.59 (2.14)
	사복지지	(n=33)	2.25 (1.95)	2.89 (2.43)
13	교복지지	(n=19)	1.90 (1.33)	4.65 (1.59)
	중립	(n=33)	1.11 (1.05)	3.73 (1.83)
	사복지지	(n=52)	2.33 (1.61)	4.04 (1.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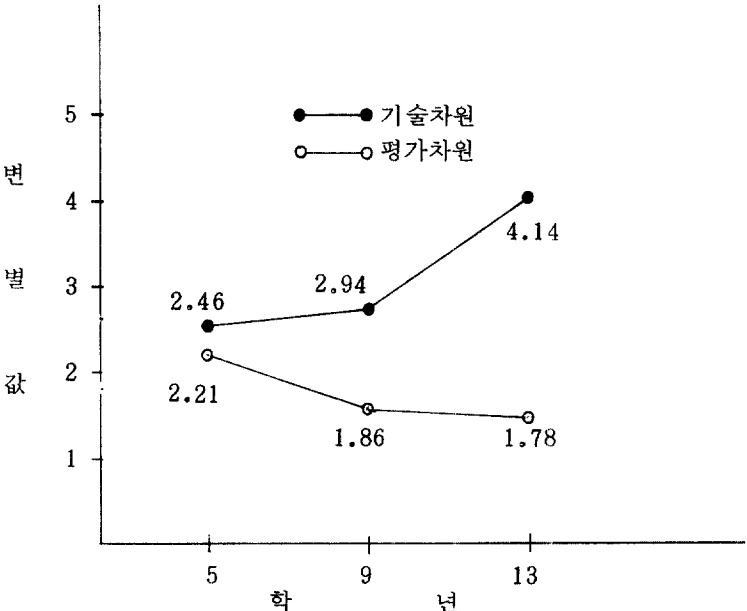
* 최저변별값(0) ~ 최고변별값(8.485)

** ()안은 표준편차

이 표에서 평가차원변별값은 그림 1의 좌표에서 교복과 사복이 평가차원에 투영되었을 때 나타나는 거리이다. 이 거리는 교복과 사복을 평가차원에서 대립시키고 있는 정도를 나타낸다. 기술차원변별값은 좌표에서 교복과 사복이 기술차원에 투영되었을 때 나타나는 거리이다. 이 거리는 교복과 사복을 기술차원에서 대립시키고 있는 정도를 나타낸다.

이 자료에서 평가차원변별값과 기술차원변별값을 피험자내로 하고 학년과 태도를 피험자간으로 하여 변량분석을 한 결과 학년과 차원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F(2, 314) = 14.17, p < .001$]. 그림 6에서 보면 기술차원 변별값은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커지는 데 비하여, 평가차원 변별값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성인은 아동과 비교할 때 교복과 사복을 평가차원에서 대립되는 것으로 보기보다는 기술차원에서 대립되는 것으로

로 볼 것이라는 앞에서의 예언을 지지해 준다.



< 그림 6 > 학년별 평가차원과 기술차원에서의 교복과 사복에 대한 변별값

그런데 그림에서 기술차원 변별값은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급격히 커지는데 평가차원 변별값은 조금밖에 줄어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실 이 결과를 차원별로 개별비교를 한 결과 기술차원에서는 학년별로 유의한 차이가 나왔으나 [$F(2, 314) = 18.87, p < .001$], 평가차원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오지 않았다 [$F(2, 314) = 1.59, n.s.$]. 따라서 평가차원 변별값에서는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효과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평가차원에서의 개별비교결과에서 피험자의 태도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F(2, 314) = 15.49, p < .001$]. 표 3에서 보면 평가차원 변별값이 교복지지가 2.33, 중립태도가 1.22, 사복지지가 2.30으로 중립태도에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중립태도에서는 교복과 사복을 평가차원에서 감정적으로 대립되는 것으로 보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중립태도의 성격에 미루워 볼 때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결과이다. 기술차원에서의 개별비교 결과에서도 피험자의 태도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F(2, 314) = 5.67, p < .005$]. 표 3에서 기술차원 변별값이 교복지지가 3.58, 중립태도가 2.66, 사복지지가 3.30이 나와 이 결과에서도 중립태도에서 변별값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중립태도는 기술차원에서도 교복과 사복을 가장 대립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것은 중립태도를 가진 사람중에 교복과 사복에 대하여 잘 모르기 때문에 중립이 된 사람과 두 대상을 다 알기 때문에 중립이 된 사람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표 1에서 5학년의 중립태도에서 다른 태도에 비하여 변별값이 가장 적고 또한 표준편차도 가장 적다는 것은 주어진 태도대상을 변별할 줄 모르는 사람들로 구성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반면에, 13학년의 중립태도에서는 변별값은 가장 적지만 표준편차는 가장 크다는 사실은 변별을 못하는 사람과 잘하는 사람이 뒤섞여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전체적인 변별값이 낮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연구는 평가차원과 기술차원의 분화수준이 아동과 성인에서 다르다는 사실에서 시작되었다. 따라서 개인의 차원분화수준과 평가차원 변별력과 기술차원 변별력의 차이를 비교하는 것은 이 연구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또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다. 표 4는 태도의 차원분화수준에 따라 질서, 개성, 평가 및 기술의 네 차원에서의 교복과 사복에 대한 변별값을 정리한 것이다. 여기서 피험자의 분화수준의 구분은 14개의 분류과제중 오답이 3개 이상일 때는 저분화집단으로, 그 이하일 때는 고분화집단으로 구분하였다.

< 표 4 > 분화수준별 질서, 개성, 평가 및 기술차원에서의 변별값

분화수준	차원			
	질서	개성	평가	기술
고분화 (n=166)	1.86 * (2.23)**	3.21 (2.24)	1.76 (1.43)	3.88 (1.88)
저분화 (n=157)	1.33 (2.74)	1.08 (2.91)	2.26 (2.03)	2.39 (1.99)

* 교복과 사복에 대한 변별값 절대치

** () 안은 표준편차

이 표에서 각 차원별로 변량분석을 한 결과 분화수준에 따라 모두 유의한 결과를 얻었다. 질서차원에서는 $F(1, 321) = 8.30, p < .005$, 개성차원에서는 $F(1, 321) = 53.40, p < .001$, 평가차원에서는 $F(1, 321) = 6.79, p < .01$, 기술차원에서는 $F(1, 321) = 47.91, p < .001$ 로 나왔다. 따라서 질서차원과 개성차원에서 고분화집단은 저분화집단에 비교할 때 두 차원 모두에서 교복과 사복을 대립되는 것으로 놓고 있다. 이것은 고분화된 사람은 질서와 개성의 두 차원에 모두 준거하여 태도를 형성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평가차원과 기술차원에서의 변별값이 분화수준에 따라 유의하게 나온 것은 저분화된

사람은 교복과 사복을 평가차원에서 감정적으로 대립되어 있는 것으로 보나 고분화된 사람은 교복과 사복을 기술차원에서 인지적으로 대립된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따라서 저분화된 사람은 교복과 사복에 대한 태도를 평가차원에 준거하여 형성하는 반면에 고분화된 사람은 기술차원에 준거하여 형성한다고 말할 수 있다.

실험Ⅱ. 태도의 준거상황 분석

앞 실험에서 우리는 사람들이 교복과 사복을 어떤 차원에 입각해서 변별하는가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 차원에서 아동과 성인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밝혔다. 그렇다면 그들 사이에 교복과 사복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는 차원도 다를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앞 절에서 아동은 질서와 개성중 어느 하나의 차원에만 준거하여 교복과 사복을 변별하는 반면에 성인은 이 두 차원을 모두 참조하여 교복과 사복을 변별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따라서 아동들은 그들의 태도도 질서와 개성중 어느 한 차원에만 준거하여 형성되는 반면에 성인은 이 두 차원에 모두 준거하여 그들의 태도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 이 실험은 이 예언을 직접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 수행되었다.

방 법

피험자 이 실험에 참가한 피험자는 중학교 2학년(8학년) 95명, 고등학교 2학년(11학년) 86명, 대학교 1학년(13학년) 93명이었다. 8학년과 11학년은 모두 남학생이었으며 13학년은 남학생 63명 여학생 30명이었다.

태도 및 분화수준의 측정 실험에서 선정한 태도대상은 학생의 복장(교복과 사복)이었다. 이 주제에 대한 태도측정은 ‘사복입는 것을 찬성한다’(-5)~‘교복입는 것을 찬성한다’(+5)의 11점 척도에서 하였다. 태도의 분화수준의 측정은 실험 I에서 제작한 직교차원분류과제와 같은 과제를 5개를 만들어서 측정하였다.

준거상황에 따른 태도의 측정 이 실험에서 교복 및 사복태도의 준거차원으로서 ‘질서’와 ‘개성’을 선정하였다. 두 준거는 각각 3개의 상황으로 구성되었는데, 질서준거는 ‘통솔이 문제시될 때’, ‘학생다움이 문제시될 때’, ‘소속감이 문제시될 때’의 상황으로 구성되었으며, 개성준거는 ‘개성이 문제시될 때’, ‘미적 감각이 문제시될 때’, ‘자율성이 문제시될 때’의 상황으로 구성되었다. 이들 6가지 상황을 피험자에게 제시하고 각 상황에서 교복과

사복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였다. 교복태도의 측정은 “다음에 제시된 여러 상황에서 교복착용이 얼마나 나쁘다고 혹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묻고 ‘매우 나쁘다 (1)’ ~ ‘매우좋다 (7)’의 7점 척도에서 응답하도록 하였다. 사복태도의 측정도 같은 방법으로 측정하였다. 여기서 상황의 제시순서는 대상별로 무선적으로 하였으며, 교복과 사복대상의 제시순서도 교복을 먼저 받은 집단과 사복을 먼저 받은 집단이 반반씩 되도록 하여 상쇄시켰다.

절차 이 실험 역시 학년별로 수업중에 집단적으로 실시하였다. 먼저 태도를 측정한 후 이어서 태도의 준거상황을 알아보는 상황검사를 실시한 후 마지막으로 태도의 차원분화수준을 측정하였다. 실시시간은 특별히 통제하지 않았으며, 가급적 신속히 하도록 지시하였다.

결 과

태도 및 학년에 따른 질서준거와 개성준거에서 교복과 사복에 대한 태도를 측정한 값이 표 5에 제시되었다. 여기서 태도집단의 구분은 앞의 피험자의 태도측정에서 -5 ~ -3에 응답한 피험자를 사복지지집단으로 하였고, 3 ~ 5에 응답한 피험자를 교복지지집단으로 하였으며, -2 ~ 2에 응답한 피험자를 중립집단으로 하였다. 표에서 질서준거와 개성준거는 각각 3개의 상황으로

〈표 5〉 학년별 질서 및 개성준거에서 교복 및 사복에 대한 태도평정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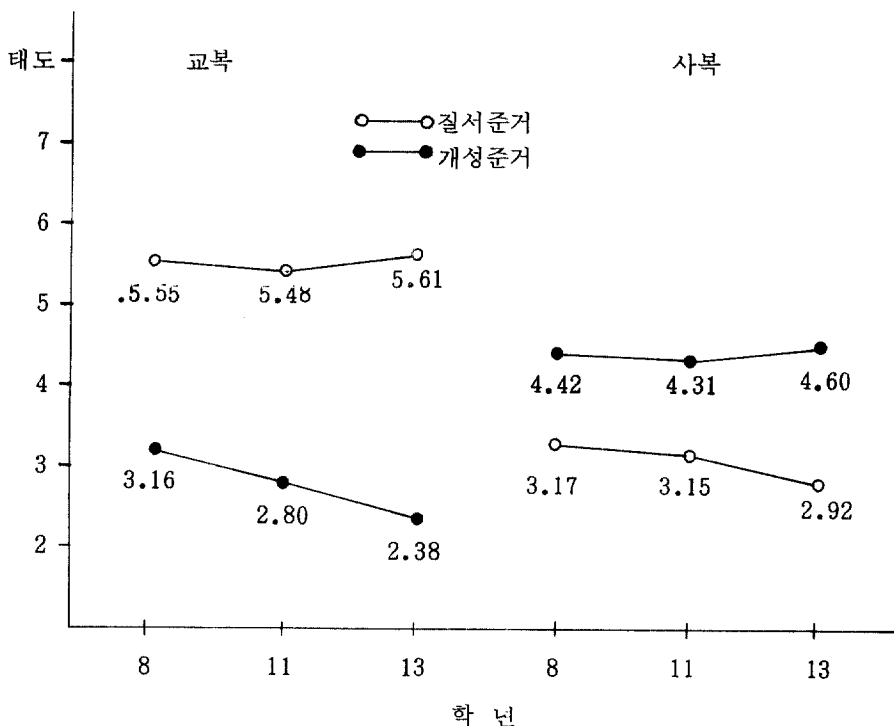
학년	태도		질서준거		개성준거	
			교복	사복	교복	사복
8	교복지지	(n=42)	6.21*	2.43	3.65	4.25
	중립	(n=20)	5.18	3.57	3.20	4.20
	사복지지	(n=33)	5.26	3.50	2.63	4.82
11	교복지지	(n=38)	6.31	2.08	3.46	3.77
	중립	(n=14)	5.29	3.50	2.71	4.36
	사복지지	(n=34)	4.83	3.86	2.24	4.80
13	교복지지	(n=27)	6.16	2.46	2.84	4.43
	중립	(n=20)	5.43	3.15	2.40	4.48
	사복지지	(n=46)	5.23	3.15	1.91	4.89

* 나쁘다(1)~좋다(7)의 7점척도

구성되었는데 이들을 합쳐 평균을 내어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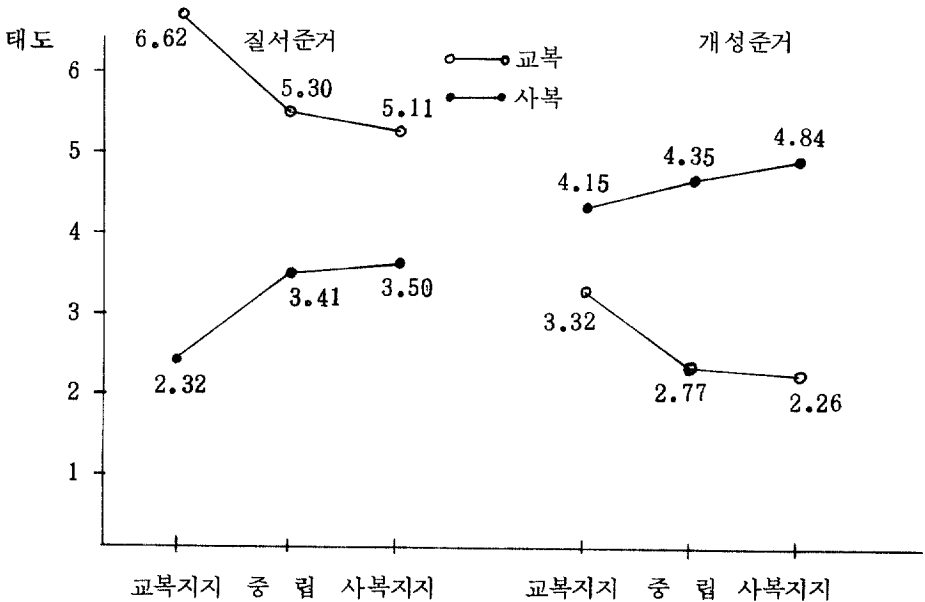
표에서 보면 우선 교복과 사복에 대한 개인의 태도가 제시된 증거에 따라 크게 달라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교복은 질서준거에서는 5.59의 값을 갖는데 비하여 개성준거에서는 2.78 밖에 되지 않으며, 사복은 질서준거에서 3.02인데 비하여 개성준거에서는 4.47로 나타났다. 즉 질서준거가 주어졌을 때는 교복은 좋고 사복은 나쁘다고 보았는데 개성준거가 주어졌을 때는 이와 반대로 교복은 나쁘고 사복에 좋다고 보고 있다. 이 결과에 대한 변량분석은 준거(질서와 개성)와 대상(교복과 사복)의 상호작용효과에서 매우 유의한 것으로 나왔다 [$F(1,265)=595.56, p<.001$]. 따라서 이 결과에서 질서와 개성중 어떤 준거에 입각해서 교복과 사복태도를 형성하는가에 따라 그들의 태도가 뒤바뀐다는 앞에서의 가정이 지지되고 있다. 즉 질서에 준거하면 교복지지자가 되고 개성에 준거하면 사복지지자가 된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그런데 이 결과는 다시 학년에 따라서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 \times 준거 \times 대상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하게 나왔다 [$F(2,265)=4.07, p<.05$.]



<그림 7> 학년별 질서와 개성준거에서 교복과 사복에 대한 태도

그림 7에서 보면 학년이 높아질 수록 교복과 사복에 대한 태도가 주어진 준거에 따라서 변화되는 정도가 커지고 있다. 따라서 성인은 자기의 태도가 준거 상황에 의해서 유동적으로 변화하는 반면에 아동은 비교적 상황에 덜 유동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결과는 아동이 질서와 개성 중 어떤 하나의 준거에서 형성한 태도를 다른 준거에서까지 고집하기 때문에 야기되는 것이다. 반면에 성인은 주어진 준거에서 얻어진 태도를 다른 준거에까지 일반화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태도가 유동적인 것이다. 이 사실은 태도에 따른 준거와 상황의 상호작용효과에서 잘 드러난다. 이 실험에서 태도×준거×대상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F(2,265)=4.22, p<.05$). 이 결과는 제시된 준거가 교복과 사복태도 형성에 영향을 주는 정도가 준거에 따라 다른 데, 이것이 피험자의 태도에 따라 다시 상호작용한다는 것이다. 교복지지자는 질서준거에 의해서 교복과 사복태도가 크게 결정되고 있는 반면에 개성준거에 의해서는 별로 좌우되지 않고 있다. 반면에 사복지지자는 개성준거에 의해서 교복과 사복태도가 크게 좌우되는 반면에 질서준거에 의해서는 별로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8은 피험자의 태도에 따라 각 준거에서 교복에 대한 평가와 사복에 대한 평가를 서로 비교한 것이다. 이 그림에서 보면 교복지지자는 질서준거에서 교복에 대한 평가와 사복에 대한 평가사이의 차이가 큰 반면에 개성준거에서는 이 차이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사복지지자는 개성준거가 주어졌을 때



< 그림 8 > 태도별 질서와 개성준거에서 교복과 사복에 대한 태도

교복에 대한 평가와 사복에 대한 평가사이의 차이가 크며, 질서준거가 주어졌을 때는 이 차이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왔다. 따라서 교복지지자는 교복에 대한 태도와 사복에 대한 태도를 주로 질서준거에 입각해서 결정하고 있는 반면에 사복지지자는 이 두 대상에 대한 태도를 개성준거에 입각해서 결정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추세를 학년별로 따로 분석해 본 결과 8학년에서는 태도×준거×대상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하게 나와 [$F(2, 92)=3.52, p<.05$], 그림 8 과 같이 피험자의 태도에 따라 준거가 서로 다르다는 결과가 나왔으나, 11학년 [$F(2, 83)=2.87, n.s.$] 과 13학년 [$F(2, 90)=1.27, n.s.$]에서는 유의한 결과는 얻지 못하였다. 따라서 11학년과 13학년에서는 태도를 결정하는 준거가 피험자에 태도에 따라 다르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실은 앞절에서 아동에게서는 교복과 사복대상을 변별하는 차원이 그들의 태도에 따라 다른 반면에 성인은 같다는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이상의 결과에서 성인의 태도는 주어진 준거에 따라 변화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아동은 준거에서 형성된 태도를 다른 준거에서도 고집함으로써 준거에 따른 태도 변화가 제약 받게된다는 것이 드러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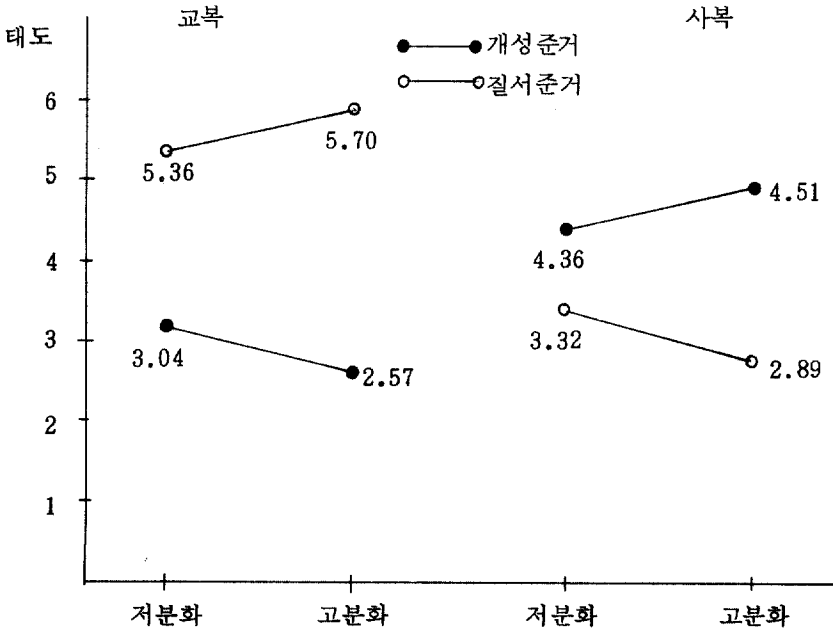
표 6에서는 태도의 분화수준에 따라 질서준거와 개성준거에서 교복과 사복에 대한 태도를 제시하였다. 여기서 분화수준의 구분은 방법에서 제시한 5개의 직교차원분류과제에서 1개 이하 오답을 범한 피험자를 고분화 집단으로, 2개 이상 오답을 범한 피험자를 저분화 집단으로 나누었다. 표를 보면 고분

< 표 6 > 분화수준별 질서 및 개성준거에서 교복 및 사복에 대한 태도평정값

분화 수준	태 도	(n)	질 서 준 거		개 성 준 거	
			교 복	사 복	교 복	사 복
고분화	교복지지	(n=53)	6.32 *	2.31	2.93	4.30
	중립	(n=31)	5.53	2.98	2.62	4.47
	사복지지	(n=67)	5.25	3.39	2.15	4.77
저분화	교복지지	(n=54)	6.15	2.32	3.82	3.96
	중립	(n=23)	5.00	3.96	2.99	4.17
	사복지지	(n=53)	4.94	3.69	2.31	4.95

* 나쁘다(1)~좋다(7)의 7점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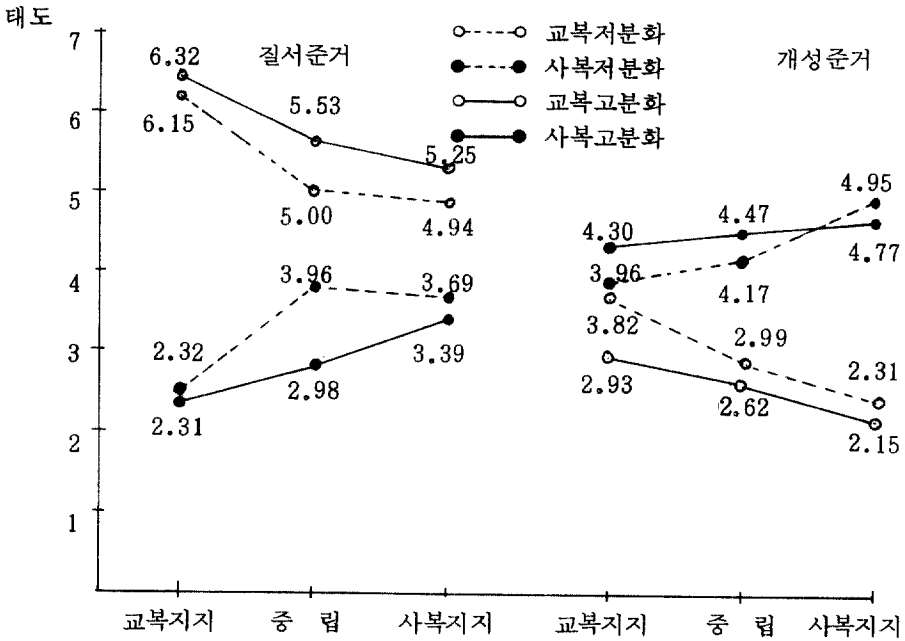
화집 단은 저분화집단에 비하여 제시된 증거에 따라 태도가 더욱 유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 결과에 대한 분석도 분화수준×준거×대상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하게 나왔다 [$F(1,268)=17.58, p<.001$]. 그림 9에서 고분화 집단의 태도의 유동성이 잘 나타나 있다. 이 결과에 대한 해석은 앞의 학년별 결과에서의 해석과 동일하다.



〈 그림 9 〉 분화수준별 질서와 개성준거에서 교복과 사복에 대한 태도

또한 여기서도 앞서와 같이 태도×준거×대상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하게 나와 [$F(2,268)=5.03, p<.01$], 개인의 태도에 따라 교복과 사복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는 준거가 다르다는 결과를 얻었다. 그런데 이 결과를 분화수준별로 따로 분석한 결과 저분화수준에서는 그와같은 결과가 나와 태도×준거×대상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하나 [$F(2,120)=4.08, p<.05$], 고분화수준에서는 이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F(2,148)=2.29, n.s.$].

그림 10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저분화집단에서 교복지지집단은 교복과 사복에 대한 태도를 질서준거에 의해서 결정하는 반면에 사복지지집단은 개성준거에 의해서 결정하고 있다. 그러나 고분화집단에서는 피험자의 태도에 따른 이같은 차이가 비교적 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저분화집단에서 교복지지자



〈그림 10〉 분화수준별 질서와 개성준거에서 교복과 사복에 대한 태도

와 사복지지자는 그들의 태도가 서로 다른 준거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논 의

이 연구에서는 사회적 대상을 변별하는 준거차원이 아동과 성인에서 다르다는 사실을 규명하였다. 아동은 사회적 대상을 평가차원에서 변별하지만 성인은 기술차원에서 변별하였다. 또한 아동과 성인에서의 이같은 차이가 그들이 갖고 있는 준거신념의 구조에서의 차이에 기인한다는 사실도 밝혔다. 아동은 대립되는 태도 사이에 그들의 준거신념이 서로 다르다는 것이 밝혀졌다. 교복지지자는 질서없다와 질서있다와 질서차원에 준거하여 교복과 사복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는 반면에, 사복지지자는 개성없다와 개성있다와 개성차원에 준거하여 태도를 형성하였다. 이 때 교복지지자의 준거는 사복지지자에게는 준거가 되지 못했으며, 이와 반대도 마찬가지였다.

따라서 교복지지자는 질서가 있는 교복에 대하여 호의적 태도를, 질서가 없는 사복에 대하여 비호의적 태도를 갖게 되었다. 반면에 사복지지자는 개성이 있는 사복에 대하여 호의적 태도를, 개성이 없는 교복에 대하여 비호의적 태

도를 갖게 되었다. 즉 이들은 교복과 사복을 호의-비호의의 평가차원에서 대립시켰다. 그러나 성인은 대립되는 태도사이에 그들의 준거신념이 다르지 않았다. 교복지지자와 사복지지자가 모두 교복은 질서가 있는 반면에 개성이 없고, 사복은 개성이 있는 반면에 질서가 없다고 보았다. 즉 이들은 교복과 사복을 질서있다-개성있다의 기술차원에서 대립시켰다. 따라서 이들의 태도도 주어진 상황에 의해서 결정되었다. 질서를 요구하는 상황에서는 교복을 선호하였으며, 개성을 요구하는 상황에서는 사복을 선호하였다.

이 연구에서 얻어진 이상의 결과는 한 마디로 아동은 ‘질서없다~질서있다’나 ‘개성없다-개성있다’의 두 평가차원 중에서 어느 한 차원에 준거하여 교복과 사복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는 반면에 성인은 ‘질서있다-개성있다’의 기술차원에 준거하여 태도를 형성한다는 사실이다. 여기서 아동이 교복과 사복대상에서 나타날 수 있는 두가지 가치, 질서와 개성 중에 어느 하나의 가치에만 매여서 대상을 평가하는 것은 자기중심적인 것이다. 왜냐하면 질서와 개성중 어느 하나의 가치에만 입각해서 대상을 평가한다는 것은 주어진 대상을 한 쪽 가치에서만 바라보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교복지지자가 질서에 입각해서 교복을 평가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사복까지로 평가할 때 문제가 제기된다. 따라서 문제는 질서와 개성중 어느 하나의 가치를 가지고 교복은 물론 사복까지도 판단하려는 데서 발생한다. 마치 Piaget (1951)의 세 산 실험에서 아동이 자기의 입장에서 보이는 대로 맞은 편에 앉아있는 인형도 나와 똑같이 보고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과 같다.

실제로 사람들이 질서와 개성중 어느 하나의 가치를 판단의 준거로 선택하는 것은 아무렇게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가 처한 입장을 반영하는 것이다. 선생이라는 입장은 학생을 통솔해야 하며 기강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질서가치를 선호할 수 밖에 없으며, 이와 반대로 학생이라는 입장은 구속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개성가치를 선호할 수 밖에 없다. 이수원(1988)은 교복과 사복을 착용할 때 나타날 수 있는 28가지의 신념들을 요인분석한 결과 질서와 개성의 두 개의 요인으로 묶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질서와 개성의 두 가치는 사람들이 교복과 사복을 판단할 때 취하는 기본적인 두 가지 입장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 두 입장 중에 어느 입장을 취하는가는 그가 처한 상황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같은 자기 중심적 판단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 것인가? 이 연구의 결과에서 성인은 아동과 달리 질서와 개성의 두 가치를 동시에 함께 갖고서 교복과 사복을 판단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것은 이들이 교복과 사복을 질서있다-개성있다의 기술차원에서 판단한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이 상태에서 사람들은 자기들의 입장에서 취하게 되는 가치뿐

만 아니라 상대의 입장에서 취하게 되는 가치도 함께 갖고 교복과 사복에 대해서 판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교복과 사복에 대한 판단이 자기중심적 입장에서 벗어나서 상대방의 입장도 참작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렇다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구체적으로 교복과 사복을 한 쪽 가치에서만 판단하던 사람이 어떻게 양쪽 가치를 다 가지고 판단을 할 수 있게 되는가라는 물음이 제기된다.

이 물음은 이 연구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다. 그러나 이 연구를 통해서 몇 가지 시사점은 얻을 수 있다. 교복지지자와 사복지지자와 같이 두 태도가 대립할 때 사람들은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 어째서 나에게 좋게 보이는 것이 남에게는 나쁘게 보이는 것인가? 즉 교복지지자와 사복지지자와 같은 개인간 대립은 필연적으로 개인내 대립을 불러온다. 개인내 대립은 개인내에서 한 대상에 대한 두 가지 모순된 감정간의 대립이다. 개인내에서 이 모순된 감정을 해결하는 길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기존에 갖고 있던 감정을 버리고 새로운 감정을 취하는 것이다. 이 때 그의 태도는 변하게 된다. 다른 하나는 자기의 태도와 상대의 태도가 태도형성의 준거로 삼았던 신념이 서로 다르다는 깨달음을 통해서 이룩된다. 즉 자기는 질서가치에 준거하여 교복과 사복을 대립시킨 반면에 상대는 개성가치에 준거하여 이들을 대립시킨다는 깨달음이다.

이 깨달음은 철학자 Polanyi(1966)의 잠잠한 동굴안에서 막대기를 가지고 발 밑에 무엇이 있는가를 더듬는 두 사람의 비유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 한 사람은 짧은 막대기를 가졌으며, 다른 사람은 긴 막대기를 가졌다고 하자.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는 막대기의 길이를 모른다고 하자. 짧은 막대기를 가진 사람은 막대기가 땅에 닿을 때까지 한참 구부려야 하기 때문에 발 밑이 웅덩이라고 판단하는 반면에 긴 막대기를 가진 사람은 막대기가 땅에 금방 닿기 때문에 언덕이라고 판단하기 쉽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웅덩이라고 혹은 언덕이라고 다툰다고 하자. 이 다툼이 해결되기 위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하는가? 두 사람이 이제까지 의식의 대상에서 제외시켰던 막대기에 대하여 인식이 미쳐야 한다. 즉 상대가 권 막대기는 긴 것이며 자기가 권 막대기는 짧은 것이라는 깨달음에 도달해야 한다. 그동안 의식의 초점(focal)이었던 발밑이 의식의 배경(tacit)이 되어, 그동안 의식의 배경이 되었던 막대기가 의식의 초점으로 드러나야 된다. 즉 배경과 전경의 전환이 일어나야 이 다툼이 해결될 수 있다.

개인간의 태도의 대립에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과정이 일어날 수 있다. 교복지지자와 사복지지자가 서로 자신과 상대가 교복과 사복에 대한 태도형성에 준거로 삼았던 가치가 다르다는 깨달음에 도달함으로써 개인간 대립을 해결할 수 있다. 여기서 이들 준거가치에 대한 인식은 위의 비유에서와 같이 배경과

전경의 전환을 통해서 획득되는 것이다. 그동안 의식의 초점이었던 교복과 사복 대상에 대한 감정이 배경이 되어, 그동안 의식의 배경이 되었던 질서와 개성가치가 의식의 초점으로 드러나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드러난 두 가치가 개인간에서 서로 다르다는 자각을 함으로서 태도에서의 대립을 해결하는 것이다. 이 때 교복지지자와 사복지지자의 개인간 대립은 사라지고 교복과 사복의 대상간 대립만이 남게 된다. 즉 교복은 질서있고 사복은 개성있다고 같이 이전에는 개인간 대립을 일으키던 질서와 개성의 두 가치가 이제는 대상간의 대립을 일으키는 가치들로 바뀌게 된다. 그리하여 이 연구에서 밝혀진 것처럼 질서있다-개성있다는 기술차원에서 교복과 사복을 대립시키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의식의 역전으로서의 전경과 배경의 전환과정은 이 연구에서 직접 다루지 못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교복과 사복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는 준거가 아동과 성인에서 다르다는 사실을 밝혔다. 그리고 이 차이 때문에 아동은 개인간 대립을 일으키는 반면에 성인은 대립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을 밝혔다. 여기서 아동과 성인에서의 이같은 차이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일어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루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과정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연구를 통해서 해명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이수원 (1988). 태도에서의 감정과 인지성분의 측정. *심리학의 연구문제*, 서울대 심리학과, 제 3호 (인쇄중).
- 이수원, 신현숙 (1986). 태도의 차원구조 : 발달적 조명. *한국심리학회지*, 3권 2호, 237-262.
- Kerlinger, F. N. (1967). Social attitude and their criterial referents: A structural theory. *Psychological Review*, 74, 110-122.
- Piaget, J. (1951). La pensée égocentrique et la pensée sociocentrique. *Cahiers internationaux de Sociologie*, Vol. 10. Paris.
- Polanyi, M. (1966). *The tacit dimension*. Garden city, N. Y.: Doubleday.
- Tetlock, P. E. (1986). A value pluralism model of ideological reason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0, 819-827.

ABSTRACT

From Evaluation to Description : The Transformative-Generative Process of Attitudinal Dimensions

Lee, Soo-won & Park, Young-Seok

Hanyang University,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was designed to testify the qualitative difference between children and adults on reference dimensions in forming social attitude(School uniform vs. Private clothes about 'Clothes in School').

In experiment I, the difference between children and adults on belief structure about social objects was observed. That is, children have different reference dimension as their attitude differ. Pro-school uniforms form their attitude based on the control dimension [not control(-) — control(+)], whereas pro-private clothes on the freedom dimension [not free(-) — free(+)]. Therefore they are set up in opposition to school uniform with private clothes on evaluative dimension [negative(-) — positive(+)]. But adults have not different reference dimension as their attitude differ. They are set up in opposition to school uniform with private clothes on descriptive dimension [control(P) — freedom(A)] That is, they judge school uniform to have control but not freedom, and private clothes to have freedom but not control.

In experiment II, the effects of the difference between children and adults of the reference dimensions on attitude formation were investigated.